

직업교육훈련 100년의 회고와 전망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인적 자원밖에 없는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에 직업교육훈련이 기여한 공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전통적으로 인문승상, 학력제일주의,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의 사회풍토 속에서도 직업교육훈련은 국가와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이와 같이 직업교육훈련은 우리 나라 전반에 걸친 공헌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응적 변화를 강요받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형태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21세기 세계화·정보화·다양화 시대로 국가경쟁력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1999년은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해이며, 직업교육훈련이 정규교육훈련으로 시작된지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지난 100년간의 직업교육훈련의 성과를 평가해 보고, 향후 직업교육훈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의 밑바탕을 이루는 일과 직업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직업교육훈련이 갖는 의미를 되새겨 본 후, 지난 과거를 회상해 봄과 아울러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1. 일과 직업교육훈련의 의의

일의 중요성은 다양한 직업적 역할에 있어서, 개개인에 따라 상이하게 인지되기도 하지만 한 개인의 일에 대한 인식은 그의 능력, 태도, 흥미, 그리고 가치관과 관련된다. 따라서 일이 단순하게 한 개인의 삶을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인 경우는 극히 드물고, 사회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서 개인 또는 가족에게 지위, 보수, 대인관계, 그리고 심리·사회적 역할을 제공한다.

대부분 일로서의 활동은, 사회적으로 직업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직업은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삶과 사회적 역할의 한 방법을 의미한다. 현대에 들어와서 직업적 활동으로서의 일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고, 일을 대하는 개인의 태도나 가치관의 긍정적인 형성이 직업에서 개인의 생산성과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국가가 보유한 인력의 질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활동으로서의 일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는 직업교육훈련의 근본적인 문제이며, 우리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 활동으로서의 일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긍정적이고 가치 있게 바꾸어 주는 것은 직업교육훈련의 중



이 종 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수석 연구위원

요한 과제일 것이다.

직업교육훈련은 넓은 의미로는 교육의 직업적 측면, 즉 개인이 자신의 적성·흥미·능력에 맞는 일을 선택하고, 그 일에 필요한 지식·기능·태도·이해 및 판단력과, 일에 대한 습관 등을 개발하는 총체적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교사·의사·변호사·컴퓨터프로그래머·농업·제조업 근로자 등의 직업인을 양성하는 교육이 모두 직업교육 혹은 직업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좁은 의미에서는 전문 대학 이하의 학력을 요구하는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업교육·기술기능교육·직업교육·직업훈련 등을 지칭한다.

한편 직업교육훈련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모든 학생들에게 직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직업적 소양을 개발하는 것으로 즉, 생활인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양교육으로서의 직업교육 훈련을 말하고, 둘째는 직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직업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여, 필요한 직무 능력을 개발하게 함으로써 유능한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말한다. 궁극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은 개인의 자아실현을 최대화하고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진다.

2. 직업교육훈련의 회고

우리 나라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은 전통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가를 발전시키고 사회

를 윤택하게 하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생산교육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관료 중심의 정치사회구조 속에서 기술직은 중인층 이하의 하급 관리로서 사회적 신분의 차별을 감수해야 했으며, 유교적인 농본주의 체제하에서 기술직의 천시경향에도 불구하고 기술전수를 위한 공장제도와 교육은 초기이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개화기에 있어서는, 근대적 신교육이 주장되면서 특히 실업기술교육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고종황제는 이른바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하여, 경전중심 교육을 지양하고, 세계정세에 눈을 뜨게 하는 새로운 교육의 중요성과 실용교육을 강조하였고, 1899년 6월 24일 칙령 제28호로 전 14조의 상공학교관제를 반포하였는데, 이는 최초의 국가설립 실업교육기관이라는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후 일본의 통감부설치로 인해, 우리의 학제는 단기간의 저급한 것으로 개편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일제의 교육정책에 반발하여 사립학교설치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1900년 이후부터는 어학, 법률, 철도, 공업, 상업, 의학 등을 가르치는 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이 활발하였다.

일제시대 전기간에 걸쳐 한국인에 대한 교육정책은,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주의 정치·경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계획 추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선 1911년 8월 23일에 공포된 제1차 조선교육령에 따르면, 조선총독부는 한국인을 일본의 신민(臣民)으로 육성하는 것을 교육의 기본 목표로 하여 근로의 습관화 형성에 힘쓰며, 일본어의 보급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을 일본에 동화된 저급한 근로자로 만들고자 하였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1922년에 제2차 조선교육령, 1938년에 제3차 조선교육령, 1943년 제

4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는데, 그 주요 바탕은 식민지 교육정책으로 일본의 국가적 이익에 철저하게 봉사하는 교육체제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우리의 교육은 새로운 국가 건설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당면 현안을 안고 출발하였다. 당시의 실업교육은 교육받은 사람을 수용할 만한 일자리는 물론 실기를 가르칠 만한 교사도 부족하였고, 실습시설이나 장비 등도 대단히 부족하였지만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실업교육 육성책을 실시하였다.

이 시기의 실업교육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일인일기(一人一技) 교육이 강조되었는데, 일인일기의 교육은 당시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는 인문중시의 사상과 기술인을 경시하는 풍조를 바로잡고, 국가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한 시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1954년부터 중등학교 교육의 개선을 위해 종합고등학교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고, 1957년에는 실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교육정책으로 '실업기술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실업교육은 불모지에 가까웠던 일제 말기의 파행적 유산과 전쟁의 피해, 산업경제의 정체 그리고 인문숭상의 전통관념 등이 중첩되어서 교육발전에 많은 한계를 나타내었다.

1960년대에는 경제성장을 위하여 기술인의 육성을 강조하였으므로, 실업교육은 큰 진전을 이루었다. 정부에서는 1963년 경기공업고등학교를 경기공업고등전문학교로 개편한 것을 시작으로 전문학교의 설치를 강화하기 시작하였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사양성을 위하여 서울대학

교 농과대학과 공과대학에 각각 농업교육학과와 공업교육학과를 설치하였다. 이밖에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다양해졌는데 이를 열거하면, 문교부는 '과학기술진흥교육 5개년계획'(1967~1971)을 통해 직업기술교육을 강화하였고, 1963년에 인문계 고등학교와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제정·공포하였고, 1973년에는 산업교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산학협동을 강화하였으며,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험·실습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였다.

한편, 과학기술처에서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각종 기술·기능인력에 대해 국가가 등급별로 자격을 인정하는 국가기술자격법을 제정·공포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술수준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노동부는 1967년 직업훈련법을 제정·공포하여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1970년대의 직업교육훈련은 부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비하여 외형이나 내용은 물론 사회적 수요에 대한 대응의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경제개발이라는 국정 과제와 결부되어서 교육정책의 핵심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 직업교육훈련은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모해 감에 따라, 단능공을 양성하던 고등학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은 적극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검정 의무를 자율화하

고, 동일 계열의 대학 입학의 특혜를 폐지하기도 하였고, 또한 기초이론과 실습을 강화하는 한편, 인간교육을 중시함으로써 인격과 기술을 겸비한 우수 기능인의 양성을 강조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 정부는 교육개혁의 기본 방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21세기를 준비하는 교육 특히 국제화·개방화·정보화·다원화 시대를 준비하는 것에 교육의 역점을 두고 있는데, 그 특징으로는 우선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들 수 있으며, 직업교육 개혁 방향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간의 교육과정 연계운영제도를 운영하거나, 산업체 근로자가 현장을 떠나지 않고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의 기술대학이 도입된 점들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1996년 2월 9일에 교육개혁 위원회가 발표한 직업교육개혁방안의 구체적인 실천에 필요한 각종 법령을 1997년 제정·공포하였는데, 직업교육 3법으로 불리는 '직업교육 훈련촉진법' '자격기본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등이 이에 속한다.

3. 직업교육훈련의 전망

가. 직업교육훈련의 여건

직업교육훈련에 크게 영향을 주는 주위 여건으로는 직업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직업환경의 변화 요인으로는, 첫째 기술혁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광범위한 확산과 급속한 발전, 둘째 시장의 세계화 추세, 셋째 경제의 서비스화 즉, 탈공업화 추세와 지식기반경제, 넷째 환경문제 인

식 제고, 다섯째 노령인구의 증가와 여성 경제활동 참가의 증가, 여섯째, 일에 대한 가치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직업환경의 변화는 직무에도 여러 면에서 변화를 주고 있는데, 그 변화의 양상을 제시하면, 직무변화의 범위로는 조직 내에서 다양한 직무 범위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고, 근로자의 직업능력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다기능과 상호 협력적 능력을 요구하고 있거나, 직무의 조직이 유연 조직화되면서 의사결정과정에 근로자들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광범위한 조직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종류의 직업에 기초가 되는 읽고 쓰고 계산하는 기초능력과, 컴퓨터를 활용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일과 관련된 전문적 능력뿐만 아니라 여기에 포함되는 의사소통능력, 분석능력, 문제해결 및 창의적 사고능력, 협상 및 자기경영능력을 요구하고 있고, 다음은 회사 특수적 능력으로서 생산과 서비스에 관련된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른 인력구조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 과거의 산업사회가 단순기능 위주의 인력을 요구하였던 것에 비해, 현재와 미래의 산업사회는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다기능 기술자와 창조력 있는 고급 기술 인력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미국이 전망한 향후의 기술기능 인력을 살펴보면, 1950년대에는 미숙련 인력이 60%에 이르던 것이, 2000년에는 15%로 낮아지고, 그에 반해 숙련 인력의 비중은 20%에서 65%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

리 나라의 기술기능 인력의 전망도 이러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데, 10% 수준이었던 중간 기술자의 인력 수요가 2010년에는 20%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런 기술기능 인력 수요 구조는 기술 발전의 속도와 함께 양질의 인력 양성이 필요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직업에 따른 취업자 수의 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0년경에는 전문 기술직의 증가율이 가장 높아 4%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서비스직도 3% 내외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고, 특히, 전문 관리직의 증가율도 매우 높아 4% 정도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생산직의 증가율은 2000년경에는 0.5% 미만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며, 농림·어업직은 증가율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을 통해서, 생산직이 차지하는 전체 인력 수요는 2010년에도 여전히 28.1%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순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다기능 인력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산업구조와 직업구조의 변화는, 직업교육훈련을 당장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미래의 직업 세계를 준비하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가야 함을 보여 주는 것이며,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의 변화는 다기능·상급 기술 보유자에 대한 수요 증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산업과 직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직종이나 직장을 여러번 옮겨야 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며, 누구라도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도태되는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보여,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나. 일과 학습의 연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은 직업적 활동으로서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교육을 실용주의적인 일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런 교육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이라는 양분화된 개념보다는 이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초등교육에서부터 직업기초능력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미래 직업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능력을 신장시키는 방향에서 교육체제를 개선해 나가야 하며, 교육내용도 직업세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습의 장도 교실중심 학습과 현장과의 연계를 맺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다.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직업교육훈련

이 시대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직업교육훈련이 전개되어야 할 방향을 찾아본다면,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지식은 개인과 사회의 공동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지식의 활용 정도가 지식기반사회의 발전 척도가 된다고 볼 때,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직업교육훈련 방법과는 차별화된 방향에서 접근해야 하며, 학습대상, 학습내용, 학습방법, 학습시기, 학습장소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새로운 모델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거의 직무에서 요구하던 지식이 전문적인 영역으로 국한되었던 것과 달리, 21세기의 근로자들에게는 다기능을 요구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지식이 고도화되고 지식이 증가하는 주기가 기하급수적

인 점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보다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일반 지식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된다. 여기에서의 일반 지식은 도구적 능력, 개인적 능력, 사회적 능력, 기본적 사실들에 관한 지식으로 구분되는데, 제시된 일반지식들은 개인이 즉각적으로 사회적 환경에 대응하고, 사회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필수조건들이며, 이렇게 정의된 일반지식에는 개인적 능력과 같은 잠재적 지식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일반지식에 대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경우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면, 첫째 의사소통 능력, 둘째 정보의 처리 및 활용의 능력, 셋째 문제해결 능력, 넷째 대인 관계 및 협력 능력, 다섯째 자기관리 능력, 여섯째 기술적 지식의 적용 능력, 일곱째 수리적 능력 등이 포함된다.

라. 평생교육으로서의 직업교육훈련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산업사회와 인력구조의 변화, 일과 학습의 연계,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 등으로 인해, 직업교육훈련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최근의 직업교육훈련은 중국교육이 아니라 직업인 양성을 위한 직전교육, 취업 후의 계속교육, 그리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장에서의 교육 등이 연결된 평생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초·중학교에서부터 일과 관련된 교육을 진지하게 논의하여야 하며, 일반지식으로 기초직업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평생학습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준비교육으로서, 초·중학교의 광범위한 교과 영역에 걸쳐 직업기초능력을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의 초·중학교 학생

들이 21세기의 주역이라고 할 때, 이러한 문제점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는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평생교육 측면에서 교육 정책을 논의하여야 하며, 둘째 직업기초능력의 강화는 평생학습사회에서의 기초능력 강화라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학습에 있어서도 실용성을 강조하여야 하며, 셋째 진로지도를 강화하여야 하며, 넷째 학습자들에게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자율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에 관하여 살펴보면,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은 주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졸업과 동시에 직업 세계로 진출하는 학생들에게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 분야의 직업에 관한 전문교육과 일반보통교육을 함께 실시하여 왔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목적은 기본적으로 제6차 교육과정까지는 졸업 후에 바로 취업하는 중국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은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폭넓고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 산업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전이능력 그리고 일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정보화·세계화를 특징으로 하는 미래 사회의 다양한 직업 준비를 위한 실용적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발전방안을 찾아보면,

첫째, 직업교육의 개념이 국가 인력수급, 산업사회의 변화, 개인의 요구에 따라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직업교육을 기간학제로 한 교육체제를 재정립하여, 교육의 막힌 진로를 열린 희망의 교육으로 바꾸어 실업계 고등학교 졸

업자들에게 전문대학, 산업대학 진학 등의 계속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비진학 청소년 및 성인 취업자들에게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직업 교육훈련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고등학교는 기초직업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계속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직업교육훈련기관간의 수평적·수직적 연계를 통해 노동시장과 연동된 직업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연계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이론과 실습이 통합된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모듈식 교과서 개발, 실습장 형태의 개선, 학급당 학생수 하향조정, 시설·설비의 보완, 실험·실습비 증액, 교사의 재교육 등 제반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며, 넷째, 계속교육에 대한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문대학 수준 이상에서 적용하고 있는 학점 인정제를 고등학교 단계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다섯째,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선택 수능제를 도입하되, 선택 과목에 직업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이수한 학습결과를 입시에서 그대로 반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여섯째, 교육과정과 통합된 국가기술 자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일곱째,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질 향상 및 교원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실업계 교원 양성·연수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운영하고, 교원 양성 및 연수 과정에 일정 기간의 산업체 현장실습을 의무화하며, 실업계 교원 임용고사에 실기시험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하며,

여덟째, 지역사회 직업교육훈련 센터로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직업교육과정 측면에서 고등학교 단계 직

업교육의 발전방안을 찾아보면, 첫째 평생교육 이념을 반영한 직업교육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둘째 다양한 교육과정이 제시되고, 교과 선택 폭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교육과정은 노동시장과 연계되어야 하며, 넷째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전문대학 직업교육훈련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등교육법 제4절 47조에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중견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중견직업인의 양성, 성인교육실시, 지역사회 봉사, 고등교육 대중화에 일익 담당, 그리고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 준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대학에 있어서 기능상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각 계열별 및 전공학과별로 어떤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중견직업인을 양성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과, 졸업자가 사회에 진출하였을 때 현장 적응력이 높은 중견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어떤 내용으로 편성하고, 어떤 방법으로 교육할 것인가를 상세하게 정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문대학에서도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요구들이 대두되고 있으며, 산업 사회의 변화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개혁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등교육이 엘리트 교육단계를 지나 대중화 단계를 거쳐 보편화 단계에 있는 나라에서, 국민의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다양한 직업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일 것이다. 우리나라 전문대학은 외형적인 직업교육으로서의 체계는 갖추고 있으나 특성 있는 교육의 역할과 기능

수행 그리고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향이 재설정되어야 하는데, 그 발전 방향을 제안하면, 첫째, 전문대학의 교육목적은 중견직업인 양성에 국한하지 말고 평생교육 이념 아래 계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되, 특히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전문대학 수준의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둘째, 산업인력을 장·단기로 전망해 볼 때, 중견직업인은 우리 나라 산업인력구조의 핵심을 이룰 것이므로 전문대학은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하는 양과 질이 고려된 중견직업인을 양성하여야 한다. 셋째, 전문대학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직장인이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넷째, 전문대학이 지역사회 대학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되어야 하며, 다섯째, 산업 현장의 직무 분석을 통해 전문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교재 및 교수·학습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고, 여섯째, 교수 임용시에 전공과 관련된 산업현장의 경험을 일정기간 의무화하거나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해야 하며, 교수 업적 평가를 교육중심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교육 측면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은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이 분리되어 있으며, 사회교육 측면에서의 직업훈련기관으로는 공공직업훈련기관, 인정직업훈련기관, 사업내직업훈련기관, 지정직업훈련기관 등이 있으며, 사회교육기관으로는 기술계 학원 등이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하고 특히 고학력 실업자들의 계속 교육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분리된 직업교육훈련 체제는 단절되거나 투자가 중복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회교육 측면에서도 사회교육 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규 교육기관과 사회교육 기관과의 연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4. 결 어

고종황제가 1895년 제1차 칙서를 통하여 실용과 근검과 노작을 강조하고, 1899년 제2차 칙서에서 실업교육을 강조함과 아울러 같은 해에 상공학교를 설립하여 정규교육훈련으로 실업교육을 시작한 지 100년이 되는 시점에서, 진학위주의 일반교육에 비하여 실용성을 중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이 열세에 있음을 볼 때, 직업교육훈련을 활성화하여야 할 책임을 더욱 느낀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광복이후 시대적 요청에 따라, 단계별 직업교육훈련의 성격과 목적을 수정해 가면서 산업인력을 양성·공급하여 왔는데, 1960년대로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숙련된 단능공 중심의 인력을 양성하여 경제개발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직업군에 관한 기초기능을 강화한 다능공 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교육훈련 수요자와 산업사회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전개하였고, 1990년대에는 정보화, 세계화, 다양화의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는 가운데 교육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우리의 직업교육훈련은 일과 학습이 연계된 가운데 지식기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되, 그 체제는 평생직업교육으로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